

포천시 문화예술단체장 12 포천메나리보존회 회장 류태균

무형문화재 지원정책 획기적 改善 필요

포천메나리는 2000년8월21일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고시되었으며 가산면 방축리 263번지에 소재하고 관리단체는 포천메나리보존회이다.

메나리는 '농부 노래'라는 순수 우리말이며 포천은 논밭과 밭일에 대한 노동요(일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많이 전해지고 있으며 소리 또한 우수하다.

그 중 논밭 때 불러지는 포천 메나리는 포천지역에서 많이 불려진 대표적인 노동요로 포천 메나리는 메기는 소리, 지르는 소리, 받는 소리, 매는 소리, 밟는 소리의 다섯 마당으로 편성되어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부름으로 한 소리로 완성시키는 것이 독특하다.

그 내용인즉 농사일의 과정에 따라 씨래질 소리(소몰이), 모내기 소리(열소리), 애벌 논매기 소리, 두벌 논매기 소리(메나리)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가산면 방축리에 전수회관이 있다.

포천메나리보존회 류태균(69·사진) 회장은 2002년에 취임해 5년째 포천메나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 류 회장은 가산면 금현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으며 메나리가 좋은 점은 주고 받는 식의 메나리이며 한 구절을 다섯 사람이 매기고 지르고 받고 내고 맺는 창법이 독특하다고 한다. 이렇게 5단계 메아리는 전국에

서 유일하다고 한다. 현재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류 회장은 회원이 늘어나 현재 전수회관이 비좁아 증축이 필요하다고 한다. 류 회장은 포천메나리는 회원은 많은데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여 운영에 나가기 힘들다고 한다.

공연을 하기 위해 한번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형버스 2대가 필요하고 소품트럭 1대가 필요하며 회원들 식사경비 등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극히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맥을 이어나가기가 매우 힘들다고 한다.

포천시가 1년에 480만원, 경기도가 600만원, 강수동 삼우석재회장이 500만원(3년 전까지는 1천만원)을 지원해 1천580만원으로 1년을 운영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이다. 보다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포천메나리 발전 방안에 대해 류 회장은 "후계자를 양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메나리를 이어갈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안타까운 실정을 밝힌다.

따라서 류 회장은 포천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등에서 무형문화재 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메나리는 최소한 1년은 연습해야 무대에 설 수 있다. 류 회장은 누구나 메나리를 배울 수 있음을 강조하며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실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포천메나리 전수회관이 가산면에 있다보니 포천시민들이 가산면의 문화재로만 아는데 포천시의 자랑이라며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포천메나리를 배우고 익힐 수 있다고 한다.

포천신문에 대해 류 회장은 이렇게 인터뷰 하는 것만 해도 흥보처럼 매우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포천메나리에 관심을 갖고 홍보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정원시예학원에서 서예를 공부하고 있다. 부친이 서울에서 사업을 해 서울창신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으나 6·25전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이제야 농사지으면서 한문 배우고 서예도 공부하고 있다. 미흡 대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포천메나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포천메나리 발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류태균 회장이 밝힌 포천메나리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1991년 9월 경기도 대회 최우수상 ▶1992년9월 포천민요 전국대회 문화관광부장관상 ▶1995년9월 포천민요 경기도대회 장려상 ▶1996년4월 MBC 연례노래방 방송 출연 ▶2001년9월 경기도 도자기 엑스포 출연 ▶2002년6월 월드컵 행사시연(수원장안공원) ▶2002년2월~3월 롯데월드컵 축제 참가 ▶2003년10월19일 한중일 민속개막식 메나리 시연 ▶2004년2월23일 한국정신문화원 세미나 참석 ▶2004년8월15일 전국 향토민요대회 국립국악원 ▶2005년1월17일 삼성재단 창작동요 세미나(국립국악원) ▶2005년5월13일 이천도자기 엑스포 메나리 시연 ▶2005년8월21일 국립국악원 메나리 공연 ▶2005년8월28일 국립국악원 삼성재단 창작동요 세미나(국립국악원) ▶2005년10월3일 전국민속놀이 공연 포천공설운동장 시연 ▶2006년9월21일 파주 임진각 메나리 공연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63

선비가 없으니 이 나라의 도는 사라졌구나!

서경덕은 송도 사람으로, 여러 대에 이르러 가문이 보잘 것 없고 집도 가난하였다. 일찍이 『서경(書經)』을 읽다가 '1년은 366일'이라는 주석을 보고 거듭 생각했으나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어떤 늙은 선비가 경사에 밝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나 늙은 선비는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나도 그 대목에 이르러 수많은 사람들에 물어보았으나 늙은 스승이나 나이 많은 선비라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나 또한 배우지 못하였다."

서경덕은 집으로 돌아와 탄식하며 말했다.

"세상에 통달한 선비가 없으니 이 나라의 도(道)는 사라졌구나!"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서경덕은 그 대목을 뜯어 벽에 붙여놓고 침식까지 있으며 15일 동안 탐구하여 마침내 그것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열일곱이었다.

이후 그는 혼자 독학하여 명성이 날로 빛났는데 그를 추앙하여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비록 천 리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멀게 여기지 않았다. 당대의 명망 있는 선비들이 대부분 그를 만나보고 가르침을 받을 정도였다.

어느 날, 서경덕의 제자 이구(李球)가 스승을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서경덕은 그가 만일대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다. 그때 이구는 울무와 질경리로 끓인 죽을 드렸는데, 서경덕은 죽을 맛보고 나서 말했다.

"내가 평생 마른밥을 먹을 때가 드물었는데, 이 죽은 바로 내게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고는 일어나 죽을 추며 이구에게 노래를 부르라 하였다. 이구는 그때 선생이 흘리는 땀을 물었다. 그는 그 뜻을 알아채고서 말했다.

서경덕은 천마산 계곡의 화담이라는 곳에 초가를 짓고 살았다. 제자 한 사람이 산에 두 개 동굴을 파주자 그 바위굴에서 산양을 치기도 하였으며, 대개는 찾아오는 선비들과 학문을 토론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도 많았다. 어머니의 뜻을 따라 생원시에 응시해 합격하였으나, 그 뒤로 다시는 과거를 보지 않았다.

제자 강문우(姜文祐)가 어느 날 쌀을 지고 서경덕을 찾아왔

동안 벽을 쳐다보고 앉아 공부했어도 나에게 무너졌지만, 오직 화담 선생은 여러 해 동안 가까이 지냈으나 무너지지 않았으니 이는 진실로 성인(聖人)이로다."

그러고는 화담에게 말하였다.

"송도에 삼절(三絶)이 있습니다."

"무엇이 삼절인가?"

"박연폭포와 선생과 저입니다."

허엽(許翬)이 늘 서경덕을 존경했다.

어느 날 허엽이 서경덕을 만나기 위해 화담 계곡에 갔다. 그때 서경덕은 거문고를 타면서 시를 읊고 있었는데, 허엽이 저녁밥을 지으러 하자 먼저 말했다.

"나도 밥을 먹지 않았으니 내 먹을 것도 함께 짓게."

허엽이 부엌에 들어가보니 이끼가 가득 끼어 있었다. 허엽이 깜짝 놀라 서경덕에게 물었다.

"아니, 술 안에 왜 이끼가 끼어 있습니까?"

"깊이 막혀 집사람이 옛새끼 오지 못했네. 그동안 밥을 지을 쌀이 없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았는데, 벌써 이끼가 끼었나 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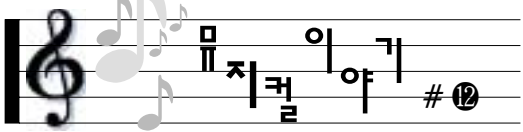
허엽이 안타까이 여기면서 선생의 얼굴을 바라보니 조금도 굶주린 빛이 보이지 않았다.

병이 깊어 마침내 죽을 날이 다가오자 서경덕은 자신을 돌봐 주던 사람을 불렀다.

"내가 허약하여 움직일 수 없으니 나를 업어 계곡에 데려다주게." 이윽고 물가에 도착하자 서경덕은 목욕재계한 후 조용히 죽을 맛랐다. 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았던 그의 비석에는 '생원서도 지묘(生員徐某之墓)'라고 썼다.

서경덕(徐敬德) 1489년(성종20)~1546년(명종1). 본관은 당성(唐城)이며 자는 가구(可久). 호는 화담(花潭) 또는 복재(復齋)이다. 그는 송도의 화담(花潭)에 은거하며 살았는데 사람들이 마을 이름을 따서 화담이라 불렀다.

1531년(중종26) 어머니의 요청으로 생원시에 응시하여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나 벼슬을 단념하고 성리학 연구에 더욱 힘썼다. 1544년에는 김인국이 후릉참봉(厚陵參奉)에 추천하여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특히 예학에 밝았으며 황진이(黃眞伊), 박연폭포(朴淵瀑布)와 더불어 '송도 삼절(松都三絶)'로 불린다. 저서로 '화담집'이 있으며, 시호는 문장(文長)이다.



'알렉산더스 래그타임 밴드 (Alexander's Ragtime Band)' 신드롬

32마디의 폭풍 '알렉산더스 래그타임 밴드(Alexander's Ragtime Band)' 신드롬! 어느 나라에선건 노래 한 곡이 사회의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나 비틀즈(The Beatles)도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전 세계를 열광하게 만들었지만 '알렉산더스 래그타임 밴드(Alexander's Ragtime Band)'처럼 단 한 곡으로 전 세계의 대중문화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못했다.

180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래그타임(Ragtime)은 1900년대 초까지 그 유행이 이어져 갔다. 오페라라는 보드빌과 레뷰의 성정으로 사탕길로 접어들었으며 클래식한 음악은 이미 재즈의 일종인 래그타임(Ragtime)에게 지존의 자리를 내어 주었다. 당시 파퓰러 음악은 8~16마디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형식의 32마디 곡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반 대중관객들은 긴 오페라타의 노래들 보다 이들 32마디의 파퓰러 송을 선호했고 다수 우물한 감성을 자극하는 12마디의 블루스(Blues)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들 새로운 음악에 열광했다. 보드빌이나 레뷰에서 공연된 짧은 코미디들은 비록 대부분 저속한 내용으로 변질되었지만 현실과 밀접한 시사풍자를 통해 관객과 함께 편안하게 호흡

할 수 있었다. 오페라타의 비현실적인 주제와 상황이 더 이상 관객에게 환상을 심어줄 수 없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춤을 추고 싶어 했는데 고급스러운 구식 음악에 아닌 새로운 래그타임 음악이 품을 맡기고 싶어 했다. 래그 스타일에서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테나나 소프라노의 고음이 대세였던 당시의 노래 스타일에서 비교적 낮은 소리의 중간 음이나 저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알렉산더스 래그타임 밴드(Alexander's Ragtime Band)'를 들어 보면 부르는 가수들의 음역이 어때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선하고 혁신적인 음악과 춤 그리고 당시에 고음을 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성악발성과는 다른 좀 더 다양한 노래의 발성은 일상 어투의 가사를 실어 관객들을 좀 더 대중적인 오페라타의 세계로 인도했으며 그것이 바로 초창기 뮤지컬 코미디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보드빌과 레뷰 작품들이었다.

1911년 이런 래그타임의 선봉적인 인기를 감지한 23세의 어빙 벌린은 '알렉산더스 래그타임 밴드(Alexander's Ragtime Band)'라는 곡을 작곡했는데 그 인기가 폭풍우처럼 몰아쳐 '알렉산더스 래그타임 밴드(Alexander's Ragtime Band)'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파퓰러 음악 뿐만 아니라

뮤지컬 코미디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 댄스열풍이 몰아쳐 집이든 술집이든 호텔이든 가리지 않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댄스클럽과 볼룸(Ballroom)들이 곳곳에 생겨났다. '알렉산더스 래그타임 밴드(Alexander's Ragtime Band)'라는 단 한 곡으로 인해 미국의 대중문화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사업들도 새로운 컨셉을 잡기위해 전전긍긍했다. '알렉산더스 래그타임 밴드(Alexander's Ragtime Band)'가 발표되면서 당시의 레뷰나 보드빌 같은 공연에서까지 이 가락을 차용하고 또 변형된 새로운 래그타임 음악을 만들어냈다. 가수들은 역시 보통의 자연스러운 음역에서 비교적 낮은 음역의 소리가 가슴 울림을 주며 노래를 했고 노래 가사에는 딱딱한 문어체 대신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말투가 쓰이게 되었다. 따라서 소리와 가사전달을 위해 마이크 사용이 일반화되기도 했다.

전 세계인에게 애청되고 있는 캐롤송 '화이트 크리스마스(White Christmas)'가 '홀리데이 인(Holiday Inn, 1942)'이라는 영화의 메인 타이틀 곡으로 나와 전 세계에 히트되자 그 유행세를 타고 음반 출시와 함께 뮤지컬 영화의 타이틀과 내용으로 다시 뒤여져 만들

어졌는데 '알렉산더스 래그타임 밴드'도 호화캐스팅으로 무장되어 '알렉산더스 래그타임 밴드(Alexander's Ragtime Band, 1938)'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다. 국내에는 출시되어 있지 않는데 '알렉산더스 래그타임 밴드'가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극적인 흐름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영화 <타이타닉(Titanic, 1997)>을 보면 타이타닉호가 출항했던 1912년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작곡가는 자신의 신곡보다는 어빙 벌린의 음악 '알렉산더스 래그타임 밴드(Alexander's Ragtime Band)'를 사용하고 있다.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유행음악이었기 때문일 것이다.((타이타닉)의 O.S.T 두 번째 앨범 Back to Titanic에 수록) 이외에도 시대물 영화에 수없이 등장했던 이 음악은 에디 캔터(Eddie Cantor, 1892~1964)를 비롯해 20세기 전반기를 풍미했던 가 쓰이게 되었다. 따라서 소리와 가사전달을 위해 마이크 사용이 일반화되기도 했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97)

세살 '효자'의 「단지지효(斷指之孝)」

옛날 포천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가 유복자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았다. 그러나 아홉 자를 키우며 살았고 기제는 물론 사철 철이 바뀔 때마다 맛난 과일이나면 남편의 묘소를 찾아 상석 위에 놓고 살아 있는 생전과 같이 모셨다. 마을 사람들은 20대 청상과부의 열녀다운 행실을 보고 감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남편 생전 시 같이 머슴을 데리고 문전 옥답을 갈고 씨 뿌리고 가꾸어 늘 풍성한 수확을 얻어왔으며 3대 봉제는 물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 간에 다정하여 마을 사람들이 칭찬 인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다. 자두나무, 앵두나무, 울타리를 하는가 하면 집 앞 길에는 살구나무, 밤나무를 심어 길손이 배고프면 먹도록 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바로, 밀밭 중 길가에 이었다. 따로 잘 가꾸어 지는 길손 뉘이라 팥밭을 찾아 배고프면 길손이 뜰어 오기도록 하였다.

매추나무 아들이 실하게 열리는 나무에는 울긋불긋 꽃 같이 열렸다. 사랑방에는 일꾼 내외를 살게 하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일꾼 내외는 훈인을 해도 태기가 없었다. 이상타 하였다. 그러나 청상 과수재 주인 마음에게도 재

앙이 찾아 왔다. 병마였다. 하느님도 무심타고들 하였다. 고을 원병도, 마을 촌장님도, 용하다는 의원도 치료할 방도를 찾지 못하여 고민하는 나날을 보냈다. "살아 있는 열녀 청상 과수재는 꼭 살려야 한다." 고을 원병은 엄명을 내렸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이 약을 찾아 나서고 용한 의원을 찾아 분주히 헤맸으나 청상과수는 고칠 수 없었다. 그런데 여를 잠마통에 병석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된 청상 과수재는 누워서 울기만 하였다. 마침내 하늘도 무심하였던지 그만 병석의 청상과수재는 기절

하고 말았다. 얼마 곁에서 자고 있던 세살짜리 아기는 차가워진 엄마의 시신을 깨우며 울다가 비바람에 얼린 문지방을 양손으로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엄마 살려 줘요. 엄마가 차가워졌어요" 비바람소리만 요란하였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치 않았다. 비바람은 소리치며 문을 닫았다. '앗쌀까 이럴 수가?' 문이 닫히며 세살짜리 아들의 악손을 부러뜨리고 말았다.

"엄마...나 아파 피가 나...호 해줘" 하며 피가 툭툭 떨어지는 손가락을 기절한 엄마의 입에다 넣으며 세살짜리 아기는 울었다. 「단지지효(斷指之孝)」였다. 손가락에서 나오는 피를 먹고 과수재는 다시 살아났다. 세살짜리 효자는 이렇게 해서 효자가 되었으며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백세장수 하였다 한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문화가족이 하나되는 종합문화축제

제21회 반월문화제 5월6일~13일까지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오는 5월6일부터 13일까지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다.

포천예술인동우회(회장 이병찬) 주관으로 개최하고 포천시, 포천시의회, 경기도포천교육청, 예총포천시지부 후원으로 백일장, 사생, 서예, 사진촬영대회 등을 개최한다.

전시행사는 사군자, 한국화, 전각, 서각, 수채화 등을 전시하고 참여행사로 무호, 도예(지점도공예), 한지공예, 규방공예, 목판각인술 및 시연, 가훈 및 좋은 글 써주기, 페이스페인팅, 제기차기, 연만들기, 윷놀이, 오성과 함을 캐릭터 사진 찍기 등이 마련된다.

또 연계행사로 5월7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포천초등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향토문화유적을 알게 하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향토사 박물관 알기 경시대회를 개최한다.

5월9일 11시에는 포천종합삼내체육관에서 '후도 추복공 유등부 선생'이라는 시제로 전국 한시백일장을 개최하며 5월13일 오전10시30분에는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한문, 한글, 문인화 부문 전국회화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포천문화원은 "이번 문화제는 시민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마당을 확대 실시하고 향토사 박물관 알기 경시대회, 전국한시백일장 및 전국회화대회 등을 연계하여 개최하

는 것"이라며 "향토사 박물관 알기 경시대회를 통해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향토문화유적을 알게 하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향토사 박물관 알기 경시대회를 개최한다."

5월9일 11시에는 포천종합삼내체육관에서 '후도 추복공 유등부 선생'이라는 시제로 전국 한시백일장을 개최하며 5월13일 오전10시30분에는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한문, 한글, 문인화 부문 전국회화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포천문화원은 "이번 문화제는 시민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마당을 확대 실시하고 향토사 박물관 알기 경시대회, 전국한시백일장 및 전국회화대회 등을 연계하여 개최하



많은 학생 및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초대 漢詩

回婚述懷(회혼술회)



李曉鏞 포천한시사 감사

曾吾吾耄更回年(중오합근경회년) 六十年前憶子緣(육십년전억구연)
일찍이 혼인한 해가 다시 돌아오니 육십년전 일이 다시 생각나네

世德如山高不極(세덕여산고불극) 劬勞似海浩無邊(우로사해효무변)
조상님의 덕이 산과 같아 한이없고 부모님의 은혜가 바다같이 기이 없구나.

青春昔日情空切(청춘昔日情空切) 老矣今朝夢幾施(로수今朝夢幾施)
지난날의 청춘의 심정이 간절하고 오늘의 늙은 몸은 꿈만 같구나.

己挽桑榆環其愧(기만상유환심괴) 詩壇增友一生全(시단위우일생전)
이미 늙어서 부끄러움이 많은데 시단을 벗삼아 한평생 보내리라.